

종단소식

조계종

쌍계사 '문화의 집' 착공

하동 쌍계사(주지 선곡)는 1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하동을 읍내에서 종합복지센터인 '문화의 집' 착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901평에 지상 5층 지하 1층규모로 건립되는 문화의 집은 유치원,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노인시설 및 청소년 시설(2~5층)은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해인사 대구포교원 개원

해인사 용담선원 대구포교원(원장 정선)이 지난 6일 개원했다. 동포교원은 참선수행을 비롯 교리강좌, 문화교실 등을 개설해 지역포교에 앞장서는 한편 노인무료급식, 효도관광 등을 통해 노인복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태고종

승덕정사 사리탑 봉안

관악산 승덕정사(주지 덕화)는 7일 인국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들과 지역 기관장, 신도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창건 30주년 기념 부처님 진신사리탑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 사리탑은 기존의 양식과는 달리 금동불을 4면에 모시고 사리를 모신 탑 4면을 유리로 처리해 부처님 진신사리를 항상 친견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94년 미얀마 종교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10과가 봉안됐다.

해운사 아미타불 점안

서울 봉선동 해운사(주지 정담)는 지난해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에 기도도로 영월군수를 참견, 삼존불을 봉안함에 이어 4월 23일 아미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해운사는 신중단과 후불탱화, 영단, 남불당, 칠성각, 용왕각 조성불사도 함께 봉행했다.

천태종

삼광사 한글·논문상 시상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는 16일 경내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제10회 삼광한글학술상 및 제4회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글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자에게 매년 주어지는 삼광사 한글학술상의 올해 수상자로는 김인택교수(부산대) 김영선(국제신문 편집부)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 부산지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올해 학술논문 발표대회 시상식에서는 박해진(부산대) 등 모두 10명의 학생이 입상, 상패 및 부상을 받았다.

진각종

울릉지구 수계관정불사

봉리원(원장 성호)은 28일 오후 1시 울릉도 여행인담에서 정기 51년도 울릉도 지구관 대상으로 삼매야계단 보살심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한다. 수계교도를 신성한 신교도는 수계관정을 위한 7일 이상의 참출의 해야 하며, 현실행사를 실시하거나 참석할 수 없다.

원효종

원효대사 추모 화쟁사건립

총무원이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사리리 일대 1만9천여평에 원효대사의 위업을 기리는 대규모 사찰인 화쟁사를 건립키로 했다. 화쟁사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대운)는 13일 '원효대사의 불교사상을 계승하고 현대사회를 계도하는 불교적 가치관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화쟁사를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두 6백여원의 예산을 투입 17개동으로 구성되는 화쟁사는 원효대사 유품을 모은 1백여평 규모의 전사관과, 화쟁사상을 연구하는 2백여평의 화쟁사상연구실, 요사채 4개동, 영묘전 3개동 등이 들어선다. 화쟁사는 오는 8월 착공해 2002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여래종

한·일·스리랑카 합동법회

불국위원회(위원장 해안)는 11일 성남 삼성유원지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한국·일본·스리랑카 합동 대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간부 및 일본, 스리랑카 불교관계자 등 모두 2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법회는 세계평화와 호국안민,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문 낭독과 노래 잔치 한마당 등으로 이어졌다.

“불교과목 수강 가치관 변화”

동국대 개교 91돌 재학생 348명 설문

동국대학교 재학생은 대체적으로 건학이념을 잘 알고 있으며, 불교 관련 교양과목이 학생들의 불교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교 91주년을 맞아 동국대가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서울캠퍼스 학생 3백84명(불자 39%)을 대상으로 '동국대의 불교적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2,3,4학년의 경우 72.1%, 1학년의 경우 47.5%가 불교적 건학이념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64.3%. 1학년과 상급학년의 건학이념 이해도의 차이는 학년별 불교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다고 분석된다. 불교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286명 74.5%)중 수강 불교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긍정적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74.5%) 변하지 않았다(19%) 그렇지 않다(20.6%) 순으로 나타나 불교교양수업이 학생들의 불교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응답자의 41%가 학교생활 중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을 40~60%정도라고 답해 학교생활과 불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은 52.5%. 학교생활의 절반이상이 불교와 관련돼 유지·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분포도는 60~80%가 87명, 20~40%가 68명, 80~100%가 43명 순이다. 상(上)중(中)하(下)로 응답을 요구한 '종교대학교로서의 위상'에 대한 설문에서는 1백42명(37%)이 '상'이라고 답했으며, 1백24명(32.3%)은 '중', 73명(19%)은 '하'라고 응답해 종교대학으로서의 확

비불자학생 불교에 호의적 연구·박물관 활성화 지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수분포는 50~60이 78명, 60~70이 71명, 70~80이 65명 등이다. 응답자 3백84명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백22명(31.7%), 2학년 1백66명(27.6%) 3학년 86명(22.3%) 4학년 70명(18.2%)이며, 오차한계는 5% 신뢰한계는 95%다. 한명우 기자

장성군 백양사 흑색비방 물의

관변단체 동원 '가짜승' 등 내용 괴문서 살포 장성군(군수 김홍식)이 행정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등 관변단체와 이·동장등을 동원하여 주민명의로 '사찰에서 지역역화함을 깨뜨리지 말라'는 탄원서를 백양사(주지 지선)에 보내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5월 8·9일 장성군을 비롯 광주시와 고창 선운사일대에 살포된 가공단체인 '백양사 청년신도

활동사 대중찾기 한달만에 중단 장성시(시장 이원식)가 문화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벌여온 활동사 대중과 감응사 찾기 탐사작업이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작업 한달만인 13일 중단됐다. 경주시는 4월13일부터 탐사선 2척을 동원, 경주시 양북면 봉림리 대왕암과 감포읍 대브리 일대에서 활동사대중찾기 탐사작업을 벌여

마음 누구나 성불할수 있다 나무를 쪼개고도 해도 그 속에서 꽃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꽃을 피울 수 있는 잠재된 힘이 그 속에 있다. 그러하듯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1천불자 봉축 '한마음'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사암서 법요식 각 종단 지역별 제등행진·문화행사도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14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 전국의 각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원주)는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국)은 봉원사에서 인국 총무원장과 종단 간부스님들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을 봉행하고 백련사를 출발해 흥은동 일대를 도는 제등행진을 실시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 13일 총본사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말사에서 동시에 정등식을 실시한데 이어 14일 오전 사찰별로 일제히 법요식을 봉행했다. 보문종(총무원장 해일)도 14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과 연극 풍물 어



자비정사 문수·보현보살 점안 광주 자비정사(주지 일광)는 지난 14일 향산, 해안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수·문수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일광스님은 "문수·보현보살의 인연으로 무량백억을 성취하고 또한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백나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

거조암, 7월 나한재 봉행 5백나한 수행도량인 광공산 거조암(주지 해해)에 소장된 '5백성중참문(五百聖衆講文)'이 개개 나한상과 명호를 담은 사진집으로 나온다. 이를 위한 컴퓨터 작업은 이미 마친 상태. 조선조 화엄학의 대가 영파스님이 쓴 5백성중참문은 40여장의 분량으로 석가모니의 10대제자와 16성 및 5백나한을 일일이 칭(誦)하는 예문형식으로 기록돼 있는데, 지난 95년 해해스님이 발견, 일타스님과 한화사 등의 관독을 거쳐 한글판 책으로 엮어 각 사찰 등에 3천여부를 배포했다. 제대성중참문(諸大聖衆)으로 두리몽실하게 표현된 5백26나한의 명호가 전부 밝혀져 중국이나 일본식 표기로 혼용되는 나한의 명호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거조암은 오는 7월 영산전(국보 14호) 보수공사가 끝나는 대로 5백나한을 다시 영산전에 봉안해 대규모의 나한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창립 학술·사회·문화사업등 추진

경주지역에 처음으로 학술, 복지, 교육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될 연구원이 개원된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스님·대구 불광사 주지)은 16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학술연구사업 △사회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3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경주개발 재검토 절실" 공청회, 고도보존법 촉구

경주시가 추진중인 장기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13일 보문단지내 육보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주시의 용역을 맡아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95년부터 오는 2천25년까지 30년간 총 7조7천억원의 투입하여 '도농통합형대도시' '국제교류도시' '역사문화도시' 등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총 3백5개에 달하는 미지정 문화재지구의 선별적 지정 검토와 신경주역사(화천리)를 출발한 불국사 보문단지 경주대학교 등을 연결하는 총연장 47.5km의 내부순환 경전철망 계획(LRT)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지나치게 개발위주로 작성됐다는 비난여론이 높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경주 고도보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드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크기 : 6cm x 7.5cm ▲ 크기 : 3.5cm x 10.5cm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 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랄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藥山參입니다.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랄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藥山參입니다.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랄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藥山參입니다.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랄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藥山參입니다.